

영성 독서모임 "로고스를 입다"

하나님의 모략

- 달라스 윌라드 지음 / 윤종석 옮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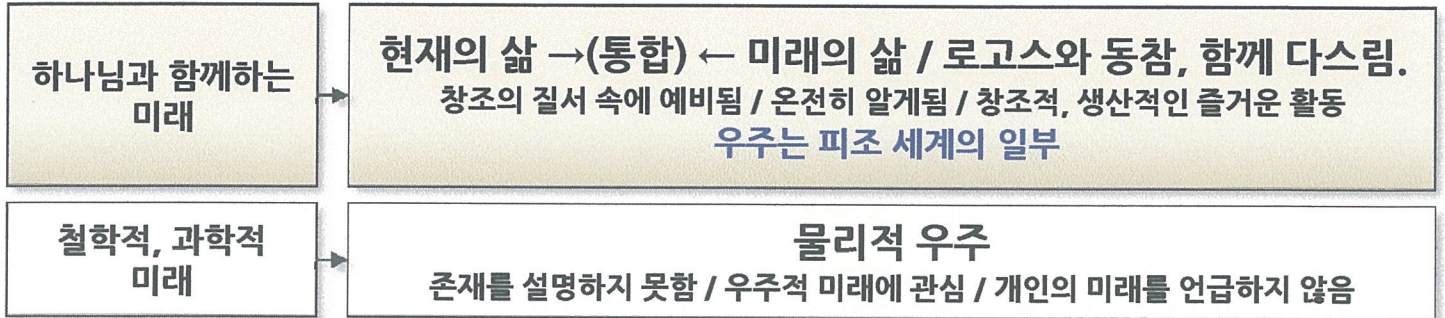
<10장> 만물의 회복

2015. 07. 11(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서울교회

[하나님의 모략] 제 10장 만물의 회복

예수의 제자 된 이들은
하나님 자신 만큼이나 크고 선한 미래가 있는 무한한 삶을 배우게 됨



인간의 생각 (악의 유혹)

- ▶ 인간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강) 이 임하게 하려는 것. (가장 큰 유혹)
- 인간의 방법으로는 선한 질서 창출이 어려움.
- 진리와 자비를 없애는 결과를 낳게 됨.
(사소한 결정에서도, 세계 역사에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

- ▶ 대화를 통해, 인간 안에 함께 사심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 아브라함, 모세, 바울..., 나와 당신을 찾으심.
- 부드럽지만, 끈기있게 밀고 나가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당연지사로 행해지는 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됨

특정집단만이 아닌, 온인류,
피조세계 전체가 그 대상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친히 삶에 함께 하심(History & Work)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알게됨.

영생이란?

하나님, 예수님, 성도들과의
끝없는 교제 가운데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삶

- * 노화, 죽어가는 것이 아닌 얻는 것
- * 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죽음을 넘어
지속되는
우리의 존재

- * 천국은 현재의 이 우주에서 맞이할 미래라는 사실.
- * 밝히 알게됨.
- * 거할 곳이 많은 "내 아버지집"에서 예수와 그분의 사람들로 더불어 창의적 활동을 감당함.

살롱
진정한 안식

온전함의 평화
기능이 충만한 평화
창의성의 평화

①지속적 성장의 시기

②통과 시기

③예수와의 통치 시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21~22)

하나님의 모략

달라스 윌라드 지음 / 윤종석 옮김

10장 만물의 회복

요한계시록 22:4~5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3:21~22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Key Word]: 무한의 삶, 현재, 미래, 통합, 우리, 우주, 피조 세계, 로고스, 인격적 요인, 로고스, 예루살렘, 존재, 본질, 성품, 연합, 공동체, 근원자, 통치자, 삼위일체, (역사), History, Work, 구속, 보존, 회복, 죽음, 육체, 천국, 지옥, 거할 곳, 통치, 창조활동, 살롬, 진정한 안식.

■ 미래를 보아야 하는 이유

- 예수의 제자 된 이들 = 하나님 자신 만큼 크고 선한 미래가 있는 무한의 삶을 배우게 됨. (상상하지 못할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충만한 미래에 대한 기대)
-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3:4): 바울
-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요일3:1~2): 요한
-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서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20): 바울
- 천국에서 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려면 미래가 어떤 것인지 마음에 확실히 품어들 필요가 있음.
- 우리는 현재 그 나라 안에서 충만하게 살기 원하며, 바로 그것을 위해 미래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함.
- 미래란 지금 분명한 이해와 기쁨의 기대로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삶에 통합될 수 있고 현재의 삶은 다시 우리의 미래에 통합될 수 있음.

【하나님께 열려 있는 우주】

- 우주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분으로 충만하며 그분께 반응하는 피조세계임.
- 물질적 우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의 본질적 표현이자 인간을 포함한 유한한 영들의 영원한 삶의 장이기도 함.

【이 우주에서의 인간의 미래】

- 현재의 우주는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음.
- 그러나 그것은 아주 놀랍고 중요한 것이다.
- 바로 그 안에서 지금 로고스, 곧 부활하신 인자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심.
-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주의 미래 통치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임.

【옛 예언】

- 예언은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의 책임을 위해 구별하신 전통을 포함, 그 어느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 표현되어 있음.
- “예루살렘” /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도성에 하나님은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사66:18)
- 그들은 자신이 본 하나님을 온땅에 전파할 것이며 모든 혈육이 이 땅의 하나님의 임제의 자리에 정기적으로 모여 그분을 기뻐하며 경배할 것이다(사 66:19~23)
-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의 능력은 인간의 정부가 한 번도 이루어 본적이 없는 공적질서를 열방 안에 직, 간접으로 성취할 것임.**
- 공홀과 진리가 만남 / 은혜와 진리가 인자의 인격 안에서 화목케 됨(요 1:17)

【“예루살렘”이 임하게 함】

- 인간이 당하는 가장 커다란 악의 유혹은, 인간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려는 유혹임.
-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대화를 통해, 그리고 인간 안에 함께 사심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
- 그것을 위해 그분은 분명한 목표를 부드럽지만 끈기 있게 밀고 나가심.
- 그분은 아브라함, 모세, 바울 같은 이들을 찾으시고, 나와 당신을 찾으심.
- 인자이신 예수께서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실 일이 수천 년 동안 지속돼 온 바로 이 과정임.
-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의 본질은 스가랴 9:9-10에 잘 나타난 것 같이 난폭한 권력, 특히 마음이 하나님의 선과 떨어진 인간들이 행사하던 권력이 하나님의 임재로 대체됨.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당연지사로 행해지는 날, 악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날임.

【모든 인류,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하여】

- 비폭력의 권능이 성령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위에 임하심(마12:18; 사42:1-4).
- 이 땅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인간에게 있고, 그분이 독생자를 주신 대상은 바로 이 세상, 온 세상임.
- 사실, 더 크게 보면 그분의 초점은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정황 속에 있는 피조된 우주 전체임.

【예언의 비전과 희망의 이유】

- 하나님은 선과 능력에 조금도 제한이 없는 완전히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 세계의 근원자 이자 통치자이시기도 함.
- 이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의 의미이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임. 이 예언의 비전을 공유하려면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됨.
- 예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볼 때에야, 비로소 세상 모든 것의 본질이 달라지며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됨.
- 우리가 예수의 비전을 갖게 되면, 어마어마한 규모에 무서운 힘을 가진 어두운 물리적 우주도 이제 하나님의 처소로 보이게 되며, 예수의 표현대로 '내 아버지 집'에 예비하신 또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삼위일체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음.
- 깊은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희망으로 빛나는 옛 예언의 유일한 출처이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친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셨음.
-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 역사를 볼 수 있음.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 역사하는 방식임.
- 이 하나님을 알기에, 예언의 증거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행3:21)를 절대적 확신으로 단호히 말하는 것임.

【하나님의 미래에서 인간의 중요성】

- 인간의 삶이나 인간 세상은 미래가 존재함으로 지탱되는 것임. 그것은 영혼의 삶을 가능케 하는 영적 산소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초월하여' 그것을 완성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임. 현재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내용 가운데 의미도 실속도 가장 미흡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과 인류 전체의 미래에 관한 부분이나, 예수를 통해 우리는 궁극의 정황인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알게 됨. 그 나라의 미래적 단계 속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가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이 땅의 역사의 의미가 들어있음. 미래의 실체를 알면, 특히 현재의 경험과 미래의 연관성을 이해하면, 현재의 천국의 삶에 커다란 힘이 되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며 그 실체에 부합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음.

【인류의 보존과 회복】

- 하나님의 세계의 실체를 감안할 때 인간의 존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더없이 합리적인 것이나,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존재하며 앞으로 계속 존재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임. 그것이 그분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임.

【그리고 가능성】

- 사후 생존의 기대 여부에 대한 모든 문제가, 예수의 하나님의 존재로 간단히 해결됨.
- 나아가, 그분의 존재는 인격의 존재가 물질에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 주고, 반대로 물질이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
- 아무튼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둘다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짐.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애타게 바라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구속하시고 친구가 되신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예수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생명 속에 인간의 인격을 분명히 보존하실 것임.

【우리 미래의 삶은 어떤 것일까】

- 영원한 삶은 무한히 향상된 삶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충족이면서 동시에 끝없는 활동과 새로움 속에 더욱 강렬하게 살아 있는 것임.

【처음으로 온전히 알리라】

- 소위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세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세계를 그 실상대로 보는 것임.
- 이 몸을 벗고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똑같이 인격과 만물을 온전히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음.

【죽음이 없다】

- 의인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수의 거듭되는 언급이 이로서 설명됨.
-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분은 말씀하심(마10:28).
-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며(요15:51-52) 사실 죽지 않음(요11:26).
-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나,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어가던 강도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음

■장차 나타날 변화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인격과 물리적 세계의 중재자인 몸은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대신 영혼이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준비를 힘.
- 현재의 인격으로서 현재의 우리가 지닌 삶은,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주 안에서 앞으로로도 계속 될 것임.
- 물론 우리의 경험은 훨씬 분명하고 풍부하고 깊어질 것임. 그 경험은 보다 넓고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나라 실체에 뿌리를 둘 것이며, 따라서 규모와 능력이 훨씬 커질 것임.

【그분의 영광의 몸】

- 예수의 첫 제자들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체험한 데 있었음. 그분께서는 시공 속 인격의 응집점인 몸이 있었음.
- 물리적 실체와 상호 작용하는 공적으로 볼 수 있는 몸이었으나 그것은 빛나는 몸이었으며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으로 불리기도 했다(빌3:21).
- 물리적 몸처럼 공간, 시간, 물리적 인과에 구속되지 않는 몸이었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 **지속적 성장 시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답게 점차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함. 우리는 갈수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이 책에 설명된 의미에서 점차 영원한 것이 될 것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임. 따라서, 노화는 잃는 과정이 아니라 얻는 과정임. 물리적 몸이 쇠할수록 영광의 몸이 가까우며 영적 실체가 더 풍부해지고 깊어진다. 아니가 들수록 우리는 분명 더 영광스러워져야 함.
2. **통과시기:** 죽음을 통과 중인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임.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맞으러오며, 그것도 아직 뒤에 남길 사람들과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중일 때가 많음.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진입하는 이 통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죽음이 폐해졌으며 로고스 안에 사는 우리는 죽음을 맞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됨.
3. **예수와의 통치 시기:**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주적 장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보다도 훨씬 광대함.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것임(눅19:17;마25:21). 우리는 '거할 곳'이 많은 '내 아버지 집'에서 예수와 그분의 사람들로 더불어 창의적 활동을 감당하는 영원한 숙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함. 우리는 엄청나게 광대한 활동 영역에서, 상상할 수 없이 뛰어난 리더십 아래서, 한없는 생산성과 기쁨을 맛보며, 놀랍도록 창의적인 공동 노력에 몰두하게 될 것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의 숙명임. 예언의 비전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진 바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임(사64:4).

[이것이 살롬이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 마지막 부분에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믿을 때 성도들이 하게 될 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우선 그는 자기가 '그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나, 결국 평화라는 단어로 그 상태를 묘사하게 됨.
- 하나님의 도성의 영원한 축복은 '끝없는 안식일'로 그려지고 있으나, 참으로 멋있고 훌륭한 이 말도 회복된 만물, 지극히 충만하게 임한 천국의 복된 상태를 다 표현해 주지는 못함.
- 안식은 맞지만 아무 활동 없이 수동적으로 있는 영원한 부동의 의미는 아님.
- 오히려 그것은 온전함의 평화요, 기능이 충만한 평화요, 평온하지만 부단한 창의성의 평화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3:21~22)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가 아이갓고 백 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사 65:17~25)

<나눔>

1. 죽음에 대해...
2. 영생에 대한 개인적 관점은 무엇인가?
3. 세상에서의 삶(직장, 교회, 가정... 일상의 생활)과 연계성에 대해...